

광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중앙 버스전용차로 생기나

내년 10월 시행 목표...노선 혁신·'연 1400억 지원' 준공영제 등 논의
서울·부산 시행 도심 간선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 도입 여부 관심

광주시 대중교통의 핵심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노선개편 등이 수순대에 오른다.

〈관련기사 3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계기로 2017년 버스 노선을 조정해 8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편에서는 준공영제 개혁은 물론,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도입이 논의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은다.

광주시는 21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중교통 혁신회의' 첫 회의에서 광주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방향과 계획을 발표했다.

대중교통 혁신회의는 지난 6월 시내버스장기사업 사태 수습을 위해 광주시가 제안한 방안이다. 혁신회의 멤버는 광주시의회 의원, 버스운송조합과 노선조합 관계자, 교통·재정·노동 분야 전문가 등 총 18명이다.

이들은 노상상생, 재정혁신, 노선혁신, 버스행정 등 4개 분야로 나눠 중점과제, 준공영제 운영방안(요금인상), 노선조정, 서비스 향상 등 전부분을 다룬다.

시는 혁신회의 출범을 계기로 외부 용역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노선 개편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 노선개편 초안을 마련해 2월부터 6월까지 시민공청회를 거쳐 7월에 확정하고 10월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날 회의는 분과별 검토과제(안)를 확정하는 자리였으나 중앙버스 전용차로 현안이 추가됐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분리해 운행함으로써 버스의 정시성과 속도를 확보하는 제도다.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난 해소, 버스 이용률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내버스 업체와 시내버스 노조 관계자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장구 을로운수 대표는 "버스 전용 차선을 도입하게 되면 버스 운행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승용차보다 더 빠른 시내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지금이 도입을 논의할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임동춘 광주시내버스 운송조합 이사장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해법"이라면서 "버스 수익금이 현재보다 10% 이상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광주의 시내버스 수송분담률(광주지역 전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중 시내버스가 차지하는 비율)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9년 30.2%였던 광주지역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24.3%로 급감했고, 2021년 26.2%, 2022년 27.8%로 증가했지만, 2023년과 지난해 각 28.1%, 28.5%에 그쳤다. 이로 인해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도입 당시 196억원에서 지난해 1402억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시는 일단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도입으로 일부차선 폭이 감소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입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김영선 광주시 통합공항공교통국장은 "사실상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해서는 애초 혁신회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지하철 공사현장 도로 복구가 완공이 되는 시기인 지금이 논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1일 수마가 활취고 간 광주시 북구 중흥동 직장어린이집에서 북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집기류 등을 수거하며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수해 복구 현장 '온정의 발길' 이어져

자원봉사자들 주민과 복구작업
생수·빵·구호품 기부도 잇따라

'괴물폭우'가 활취고 간 광주·전남 수해지역에 온정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광주시에서는 총 939명의 자원봉사자가 광주 7곳의 수해피해 지역에서 복구작업에 참여했다.

31사단과 1전비 등 군 인력 450명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구작업을 거들었다.

전남에서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자원봉사자 693명이 참여해,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로했다.

광양과 함평 등에서 자원봉사자 463명이 봉사활동을 펼쳤고, 나주 다시면에서는 자원봉사자 98명이 수해피해 비닐하우스 토사 제거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날 광주시 서구 농성동 장원빌라와 마곡동 다스리가구백화점에서는 동이 틀 무렵부터 모인 자원봉사자 130여명이 양동으로 물을 퍼내고, 집기들을 세척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광주시 북구 하남대로 공구 의거리에도 복구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50명이 복구에 비자땀을 흘렸다.

타 지역에서 먼 길을 달려 온 이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 18일부터 구례에서 광주로 달려온 곽홍석(59)씨는 "금전적으로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몸으로 재능기부해야겠다고 생각해 가족들의 응원을 받고 광주에 왔다"며 "비록 몸은 힘들어도 이렇게나마 도울 수 있어 보람된다. 광주 복구 현장을 마치고 다음주부터는 산청에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내려온 신홍철(51)씨는 "광주 자원봉사자들이 재산을 거의 좌절감에 심할 것 같다는 마음에 한달을 광주로 왔다"며 "어디

든 도움이 손길이면 필요하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해 복구를 위한 기부도 이어졌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중소기업중앙회·GS 편의점 등 단체로부터 후원받은 생수 4000개·빵 2000개·정화 80개·고무장갑 200개 등을 장성·나주 지역 수해 복구 현장에 전달했다. 농협전남본부도 피해 농민들에게 생필품 구호키트 100세트를 긴급히 전달했다.

광주·전남 사랑의열매는 오는 8월 17일까지 피해복구지원 특별모금을 진행하며, 광주시 남구도 고향사랑기부제로 민간·공공플랫폼 3곳과 협력 2억원 조성을 목표로 '긴급 모금'을 진행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당정, 양곡법 등 '농업 4법'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윤석열 정권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열어 재정이 수반되는 민생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서 소모되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8월 4일까지(법안 처리를) 최대한 목표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 정책위의장과 박 수석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선 윤정렬 국정조정실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소비쿠폰 신청 첫 날 청구 부적 ▶2면

굿모닝 예향 - 완도 체험 로드 ▶19면

타이거즈 전매대 - '쌍둥이 잡고 2위 탈환'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한흠

시카보다 4배* 강한
썩시카™ 진정한 힘으로
속건조로 생긴 수부지 트러블** 종결



* 자사 병물수출물 대비 진정 효능, in-vitro 시험 결과
*** 건조, 거칠어짐, 외부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 붉어짐